

2024-05-27 (2024-21호)

05월 27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주 후반 집중된 재료... 美 PCE, MSCI 리밸런싱, 유로존 CPI 등

서울, 5월2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 후반에 몰려있는 미국 물가지표를 비롯한 주요 대내외 재료를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55-1,380원이다.

미국 4월 고용과 소비자물가 지표 확인 이후 잠시 안도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흔들리고 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5% 근처로 오르고, 미국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1회로 수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단기 박스권 상단으로 인식된 1,370원대로 오른 뒤 대외 여건을 살피는 분위기다.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경계감이 재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결과에 당분간 모든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4월 PCE 상승률은 전월비 0.3%, 전년비 2.7%로 지난 3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지표 결과 따라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간주되는 PCE 결과는 단기 달러 방향성과 변동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화가 이렇다할 자체 재료가 아닌 글로벌 달러에 주로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터라 원화도 최근의 단단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결국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잠정치와 중국 제조업 PMI도 주 후반에 나온다.

연준보다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행보는 이미 유로 가격에 반영돼왔지만, 유로존 물가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로 약세 압력에 따른 강달러 모멘텀 확산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월말 수급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31일은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정기리뷰로 인해 패시브 자금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급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관련 보고서에서 5월 리밸런싱 적용 후 한국 비중은 소폭

0.04% 증가하지만, 대부분 신규 편입 종목 영향으로 시장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PCE 물가지수

5월3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1분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이후 4월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덜 상승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희망을 되살렸다.

지난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느리더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몇 달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 ECB 6월 금리 인하 전망... 그 이후는?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에 사상 최고치인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을 거의 약속했다. 그러나 5월31일 발표된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첫 인하 이후 얼마나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출지에 대한 시장의 추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4월의 2.4%에서 5월에는 전년비 2.5%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6월과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 후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시장의 전망은 명확하지 않다.

소시에테제네랄 팀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CB의 언어는 여전히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일본 물가도 관심

시장이 일본은행(BOJ)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려는 가운데 일본 전역의 소비자 물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31일로 예정된 도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된다.

이번 수치는 BOJ의 다음 통화정책회의 2주 전에 발표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3월의 역사적인 금리 인상 이후 중앙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금까지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엔화 약세가 소비 부진을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5월31일에는 또 최근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입과 BOJ의 채권 매입 일정을 담은 재무부의 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트레이더는 BOJ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일지 주목할 것이다.

◎ 달러 수요 증가?

'5월에 팔고 가라'는 투자 격언을 거스른 월가의 호황, 5월28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 주식, 회사채, 지방채, 기타 증권에 대한 결제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 등 여러 걱정거리가 미국 금융시장의 경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촉박해진 시간 내에 고객을 대신해 정산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거래 실패'의 위험도 커진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유입과 유출의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단기간에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미국 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혼란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T+1로의 전환은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늦은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T+1로의 전환은 사실상 T+0이다.

◎ 남아공 총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29일 총선을 치르는데, 여론조사 결과 30년 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처음으로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의회 과반 의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C가 50% 미만의 지지를 얻으면 하나 이상의 연립정부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친기업 성향의 민주동맹(DA)을 끌어들이면 랜드와 다른 남아공 자산은 이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극좌파 마르크스주의 경제자유투사당(EFF)이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최근 결성된 MK당과 손을 잡으리라는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은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ANC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인식될 경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내부 리더십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인플레이션 지표, 대선 토론으로 여름 랠리 침몰할까

뉴욕, 5월27일 (로이터) -

미국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여름철 침체가 올해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조기 대선 토론이 최근 몇 달간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 가까이 끌어올린 랠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P500지수는 올해 실적 호조와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에 12% 가까이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느린 계절이다.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CFRA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S&P500지수가 6월부터 8월까지 상승한 경우는 56%였다. 휴가를 떠난 트레이더들과 내년 자산 배분을 결정하기 전에 가을 기업 실적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여름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곤 한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금리 인하 시기와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현재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지금부터 7월 사이에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잠재적 촉매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둔화가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국채 수익률의 경로와 주식 대비 상대적 매력을 결정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현재 S&P500지수 선물 주가수익비율은 21.6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의 약 17.5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2024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켜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 그 후 4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연준이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시장은 12월 말까지 3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6월이나 7월에 또다시 높은 수치가 나오면 이러한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 다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1일에, 다음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에드 클리숄드 네드데이비스리서치 수석 미국 전략가는 "진정한 도전은 상대적인 측면에 있을 것이다. 수익률이 급등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채권과 현금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BofA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기세페 세테 토글 사장은 "모두가 롱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매수할 사람이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올해 대선 레이스는 또 다른 미

지수다.

샘 스토폴 CFRA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 메모리얼데이와 노동절 사이에 S&P500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75%였다. 그러나 올해 선거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거의 동률을 이루며 매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6월27일 토론회에도 합의했다. 이는 대선 레이스 사상 가장 빠른 토론으로, 평소보다 훨씬 일찍 경선의 잠재적 결과와 정책적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클리숄드는 "이번 대선은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5월27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5월27일(월)

- ⊙ 특이 일정 없음

5월28일(화)

- ⊙ 기획재정부: 2024년 기금평가 결과 (11: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12:00)
- ⊙ 한국은행: 2024년 제9차(5.9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5월29일(수)

- ⊙ 금융감독원: 원장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09:30)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11:00)
- ⊙ 통계청: 2024년 3월 인구동향 (12:00)

5월30일(목)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BOK 컨퍼런스 (09:00)
- ⊙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 (11:00)

5월31일(금)

- ⊙ 통계청: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BOK 컨퍼런스 (09:00)
- ⊙ 금융감독원: 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11:00)
- ⊙ 기획재정부: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2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5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4월		4.3%
5월28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3월		1.2%
5월28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3월	0.3%	0.6%
5월28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5월	96.0	97.0
5월2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5월		38.3
5월29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4월	1.3%	0.9%
5월29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4월		0.2%
5월2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24일 주간		201.9
5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5월		-0.53
5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5월	96.2	95.6
5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5월	-14.3	-14.3
5월30일	18:00	유로존	실업률	4월	6.5%	6.5%
5월30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1분기	1.4%	1.6%
5월3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0일 주간	219k	215k
5월30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4월	-0.5%	3.4%
5월31일	08:30	일본	도쿄 CPI	5월		1.8%
5월31일	08:30	일본	실업률	4월	2.6%	2.6%
5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4월	0.9%	4.4%
5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4월	1.9%	1.2%
5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5월	50.5	50.4
5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5월		51.2
5월31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5월	2.5%	2.4%
5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5월		126.05
5월31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4월	0.3%	0.5%
5월31일	21:30	미국	소비 MM	4월	0.3%	0.8%
5월31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4월	0.3%	0.3%
5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5월	40.8	37.9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27일 (월)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2024 BOJ-IMES 컨퍼런스 개회사 (오전 9시5분)
- ⊙ 휴장국가: 미국, 영국 등

5월28일 (화)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2024 BOJ-IMES 컨퍼런스 토론 참석 (오후 1시5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바클레이스-CEPR 국제통화정책포럼서 연설 및 토론 참석 (오후 10시55분)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주최 AI 관련 행사 토론 참석 (29일 오전 2시5분)

5월29일 (수)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지역 지도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참석 (30일 오전 2시4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미국경제협회 컨퍼런스 토론 참석 (30일 오전 8시)

5월30일 (목)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주최 오찬행사서 연설 (31일 오전 1시5분)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보더플렉스얼라이언스 강연시리즈서 강연 (31일 오전 6시)

5월31일 (금)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오거스타 테크니컬 컬리지 졸업식 축사 (1일 오전 7시1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삼성전자 HBM칩, 발열 및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에 실패 - 소식통들

서울/싱가포르, 5월24일 (로이터) -

삼성전자의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이 발열 및 전력 소비 문제로 인해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에 사용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세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문제는 현재 AI용 그래프 처리 장치(GPU)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세대 HBM 표준인 삼성의 HBM3 칩과 삼성과 경쟁업체들이 올해 출시할 5세대 HBM3E 칩에 영향을 미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테스트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HBM은 "고객의 요구와 함께 최적화 프로세스"가 필요한 맞춤형 메모리 제품이라고 말하면서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양희경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엔비디아, 화웨이와 경쟁 속 中 반도체 가격 인하 - 소식통

싱가포르, 5월24일 (로이터) -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최첨단 AI 반도체가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의 경쟁 반도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가격 인하는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경쟁 심화로 인해 엔비디아가 중국 사업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부각시켜, 2024회계연도 매출의 17%를 차지한 중국 시장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내 경쟁 심화는 이번 주 매출 전망 호조에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작년 말 중국 맞춤형 반도체 3종을 출시했다.

이 중 H20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강력한 제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세 명의 공급망 소식통은 로이터에 시장에 이 반도체의 공급이 충분해 수요가 약함을 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 세 명 중 두 명은 H20 칩이 화웨이의 Ascend 910B보다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잃어서는 안되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CCID컨설팅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글로벌 AI 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헤베 첸 IG 시장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유지와 미-중 긴장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확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규제 조치로 인해 중국내 비즈니스가 과거보다 "상당히" 감소했다고 경고했다.

애널리스트들은 H20의 성과가 중국 내 사업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며, 장기적인 전망은 화웨이와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야 엔비디아에 도전하기 시작한 화웨이는 올해 일부 주요 지표에서 H20보다 성능이 뛰어난 Ascend 910B 칩의 출하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화웨이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로이터가 일부 입수 가능한 정부 조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H20 반도체 구매에 관심을 표명한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산하 구매자는 5곳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화웨이의 910B는 12곳이 넘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중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라고 지시한 것도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 성공에 장애물

이 되고 있다. 다만 소식통 두 명은 이같은 지시가 최근 몇 달간 완화되었다고 전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지정학적 긴장에 달러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칼럼은 제레미 맥기버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5월22일 (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 채권 보유분을 줄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식 자본 흐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미국 국채 및 기관 채권 보유액은 평균 조정 기준 각각 400억 달러와 100억 달러 가량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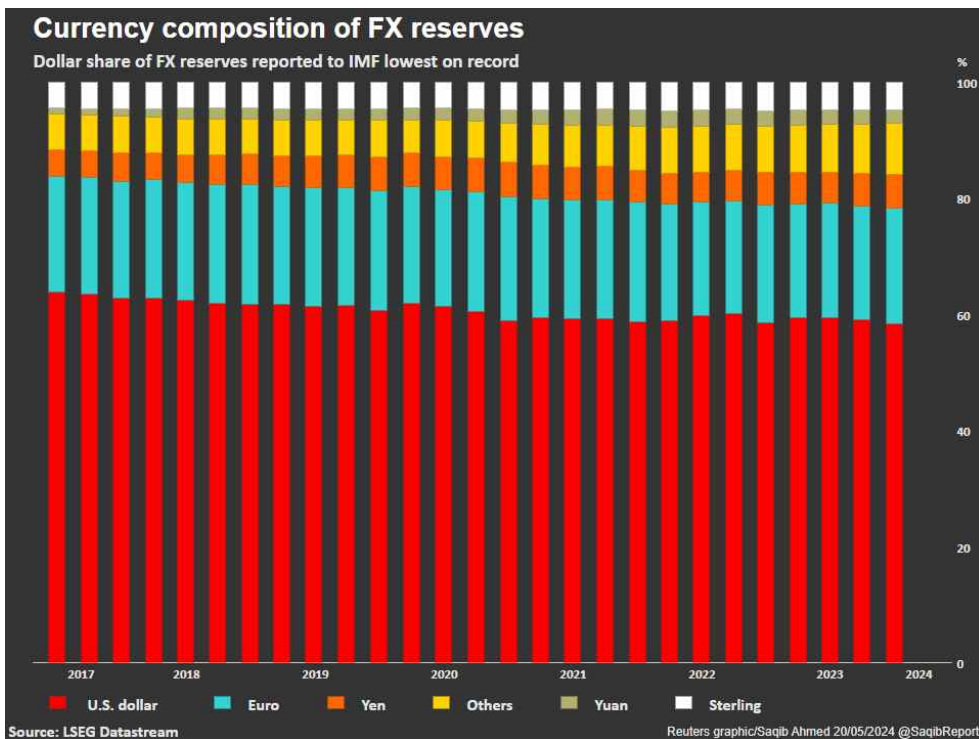
중국은 4월 집계 기준으로 3조2,000억 달러어치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다. 통화별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중 달러는 6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지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약 1조1,000억 달러에 달한다. 자금 흐름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분기에 514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반드시 국채 매수 또는 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보유분 감소는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양국은 비교해 볼 만하다.

달러가 준비통화 위치에서 조만간 밀려날 가능성은 낮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무역 블록이 점점 양극화되면서 달러의 우위적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고 구성 COFER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은 총 12조3,300억 달러인데, 달러 비중은 58.41%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점이 점점 언급되고 있다.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이달 초 연설에서 지난 2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증가한 점이 이를 말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고피나스가 지적했듯이 금은 거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자국 내에서 보관할 수 있고 제재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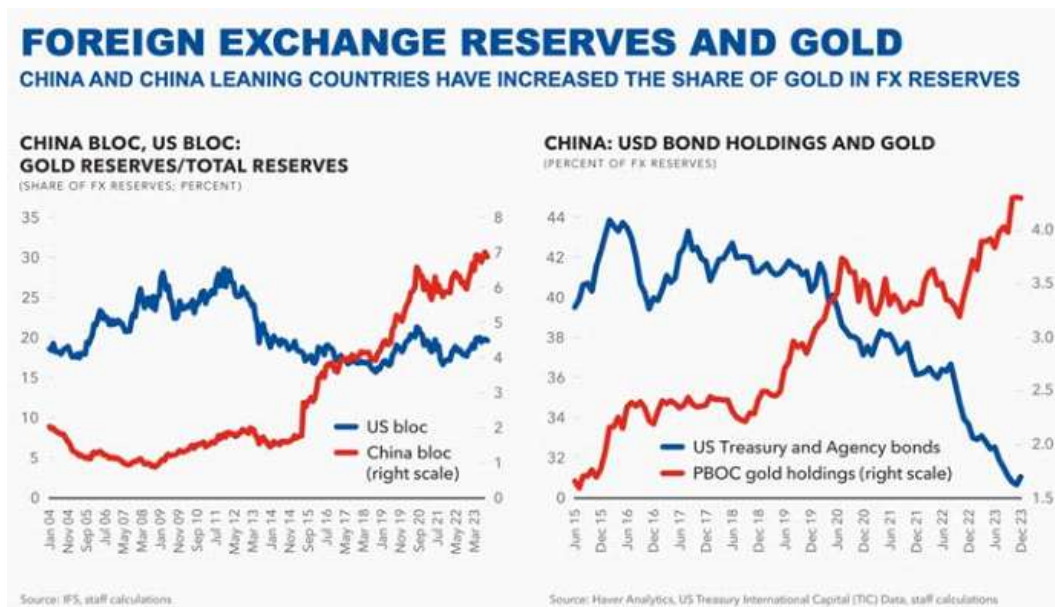
◆ 서서히 줄어들다

세계를 미국 중심 블록, 중국 중심 블록, 비동맹 국가 블록 등 세 개로 나눈 후 외환 보유액 흐름을 측정해 보면, 중국 블록의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부 추측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주도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하나, 중국은 달러 익스포저를 확실히 줄이긴 했다.

고피나스가 강조했듯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은 2015년 2% 미만에서 지난해 4.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같은 기간 중국의 총 외환보유액 대비 미국 국채 및 기관 채권의 평가 조정 기준 보유 비중은 44%에서 약 30%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 블록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 보유고 관리자들이 제재 위험 등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헤지하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이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각국이 금과 기타 통화 보유를 늘리면 달러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뉴욕 연방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린다 골드버그와 올리버 한나우이가 최근 발표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의 동인'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미묘한 점이 있다.

이들은 유엔 내 투표 측면에서 각국의 미국과의 지정학적 동조도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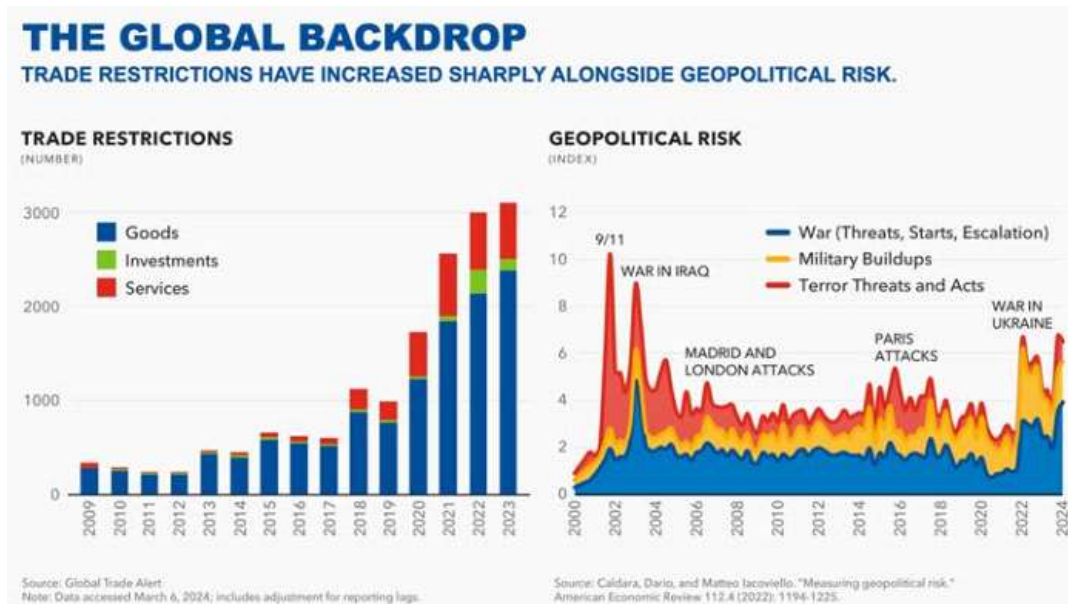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투표 기록과 외환 보유고 내 달러 비중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약하다. 미국과의 투표 동조가 낮거나 미국이 부과한 금융 제재를 받는 많은 국가는 외환 보유고 포트폴리오에서 달러화 비중이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투표 동조가 낮은 국가 중 달러 보유를 줄이기 쉬운 국가는 단기 유동성 및 부채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저자들은 발견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동조가 낮은 몇몇 국가가 달러 비중 감소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지정학적 고려 요인은 예방 차원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에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외환 보유고 관리자들이 수익률을 위해 소규모 및 비전통적 준비 통화의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 IMF 실무 보고서를 보완한다.

달러는 글로벌 무역, 금융, 송장 작성, 국경 간 거래에서 역할이 너무 크기에 조만간 주요 준비통화의 위치에서 밀려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해서 달러를 조금씩 깎아내릴 수 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中 주식 랠리 주도한 본토 투자자들... 외인은 '아직 신중'

상하이/런던, 5월22일 (로이터) -

중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당국의 최근 조치와 약속에 고무된 중국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희망을 가지면서도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이 역사적인 조치라고 칭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은 소비를 촉진하고, 우선 부문에 국고를 투입하고, 주식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월부터 이뤄진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추가적인 공식 지원 신호에 주가는 2월 기록한 수년 만의 최저치에서 반등세를 보여왔다. 벤치마크 상하이 지수는 부동산 규제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3% 이상 상승했지만, 전일에는 투자자들이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다리면서 랠리가 중단됐다. 홍콩 상장 중국 주식은 38% 가까이 상승했다.

자본 흐름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랠리는 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사라졌던 본토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며 주도한 것이었다. 외국인 자금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의 수닐 크리슈난 다중 자산 펀드 헤드는 "어느 정도는 발표된 내용이 아직 GDP에 수십 퍼센트 포인트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크리슈난은 자신의 펀드가 중국에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회복될 경우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정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며 아비바는 중국에 대해 약세 포지션에서 보다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과 지방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모기지 금리 완화 조치 공동 발표를 통해 중국이 한때 경제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대책은 중추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인민은행이 국유기업이 완공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414억6,0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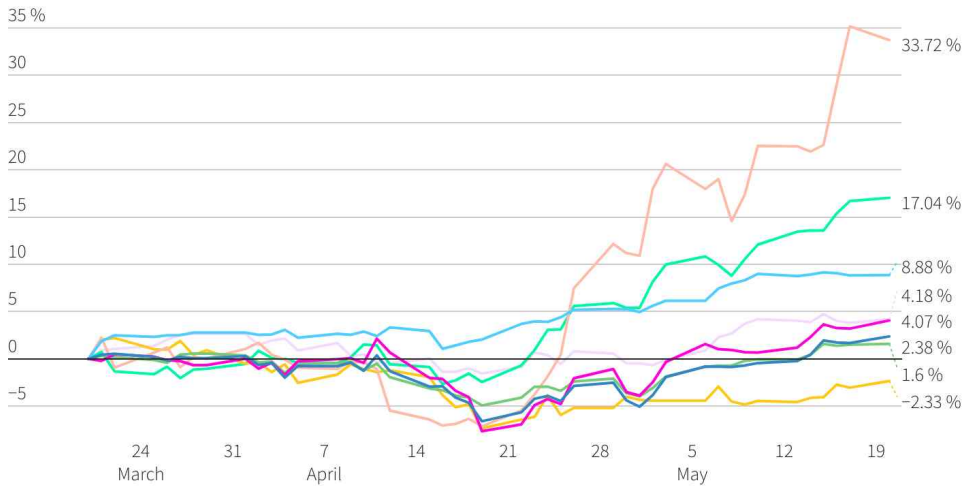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쟈보 호우 전략가는 그 수치는 "약간 압도적이지 못했지만", "입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는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과 관련해 시장의 관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는 금융 자산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덧붙였다.

Rebuilding Chinese property

Chinese real estate stocks index has sharply outperformed top world markets since April

— NIKKEI 225 STOCK AVE — FTSE 100 — S&P 500 COMPOSITE — DAX — MSCI CHINA U\$ — NASDAQ 100 — MSCI CHINA REAL ESTA — NYSE FANG PLUS TM IN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LSEG Datastream

◆ 흐름

공매도 억제 규제 조치, 전략 기술 부문 활성화, 연금 인상, 주택 보조금 지급 조치로 시작된 일련의 시장 바닥 다지기 조치는 중국 소비자들이 다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보다 지속 가능한 경기 전환 신호를 기다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부양책을 원하고 있으며, 유동성 데이터는 이들이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SEG의 리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3,000여 개의 일본 중심 펀드와 비슷한 수의 중국 펀드로 유입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중국 펀드는 이달 자금이 순유입되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로는 중국에서 12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일본에는 18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BNP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의 치 로 수석 시장 전략가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다른 시장에서 자금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자산 배분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 현금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일본과 인도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레이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제이슨 슈 최고투자책임자는 대부분의 장기 펀드 매니저들은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경색된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내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돌아섰지만, 홍콩 상장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외국인이 랠리에 합류할 경우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토 투자자들은 주식 교차매매 제도를 통해 약 330억 달러를 홍콩 주식에 투자했다. 평안증권 집계 데

이터에 따르면 4월 본토 주식 ETF에는 236억 위안이 유입됐는데, 이는 3월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크레인 펀드 어드바이저스의 크레인셰어스 ETF와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중국 대형주 ETF와 같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ETF로의 자금 유입은 수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크레인셰어스는 중국에 대해 중립 또는 비중 축소를 권고한다.

브레단 아헌 최고투자책임자는 본토 상장 주식 ETF로의 자금 유입을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목한다.

미국 프린스팔 에셋 매니지먼트의 조지 마리스 최고투자책임자 겸 글로벌 주식 헤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대해 낙관적이며, 9월 이후 중국에 다시 투자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시장이 먼저 반등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엔 약세, 소비자 지출에 타격... BOJ 금리 인상 압박 커질 듯

도쿄, 5월20일 (로이터) -

일본의 소비 부진은 금리를 인상하라는 일본은행(BOJ)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해 가계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정책 전망에 대해 매파적인 신호를 계속 내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가 반등하는 데 예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지난 3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들어 엔화는 달러 대비 약 10% 절하되었다.

지난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엔 약세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소비에 타격을 주면서 1분기 일본 경제는 예상보다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또한 감소해 엔 약세로 얻는 제조업체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올해 후반 소비가 예상대로 반등할지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표 부진 만으로 BOJ가 4월에 제시한 꾸준한 금리 인상 계획을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때 소비, 임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오미 무구루마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 수석 채권 전략가는 "BOJ는 임금 상승이 소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8월에 발표될 2분기 GDP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압박

엔 약세는 소비를 위축시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수입 비용으로 인한 가격 압력은 이미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물가조정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OJ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통화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배제했지만, 엔 약세의 단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정부 및 기업 임원들은 BOJ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로비 단체인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10일 정부 최고 경제위원회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계속 인상할 만큼 벌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도쿠라 회장은 "엔 약세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초래할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정부와 BOJ가 2% 부근의 적절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민간 부문 위원인 나카조라 마나도 BOJ가 통화 정책을 통해 "엔 절하 압력이 완화"되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미 정부는 엔 가치 급락을 촉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4월의 도비시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수정하도록 BOJ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7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 후, BOJ가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엔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 날에는 엔화 하락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의 엔화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4월26일의 발언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 발언으로 달러/엔은 160엔을 넘어섰고, 정부가 엔 매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엔화 가치는 일부 절하폭을 만회해 155엔 근처를 맴돌고 있지만, 정부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정부와 BOJ가 정책에 대한 의견차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엔 약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BOJ에게 상기시켜주는 발언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시다 행정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엔화 수준은 국민 생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론상 경제가 약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2년간 인플레이션이 BOJ의 목표치인 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명목 금리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물가조정 실질 금리는 여전히 크게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다.

마에다 에이지 전 BOJ 이사는 BOJ가 엔화 하락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 이라면서도, 엔화 움직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있을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에다는 "이런 관점에서 엔 약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면서 BOJ가 빠르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